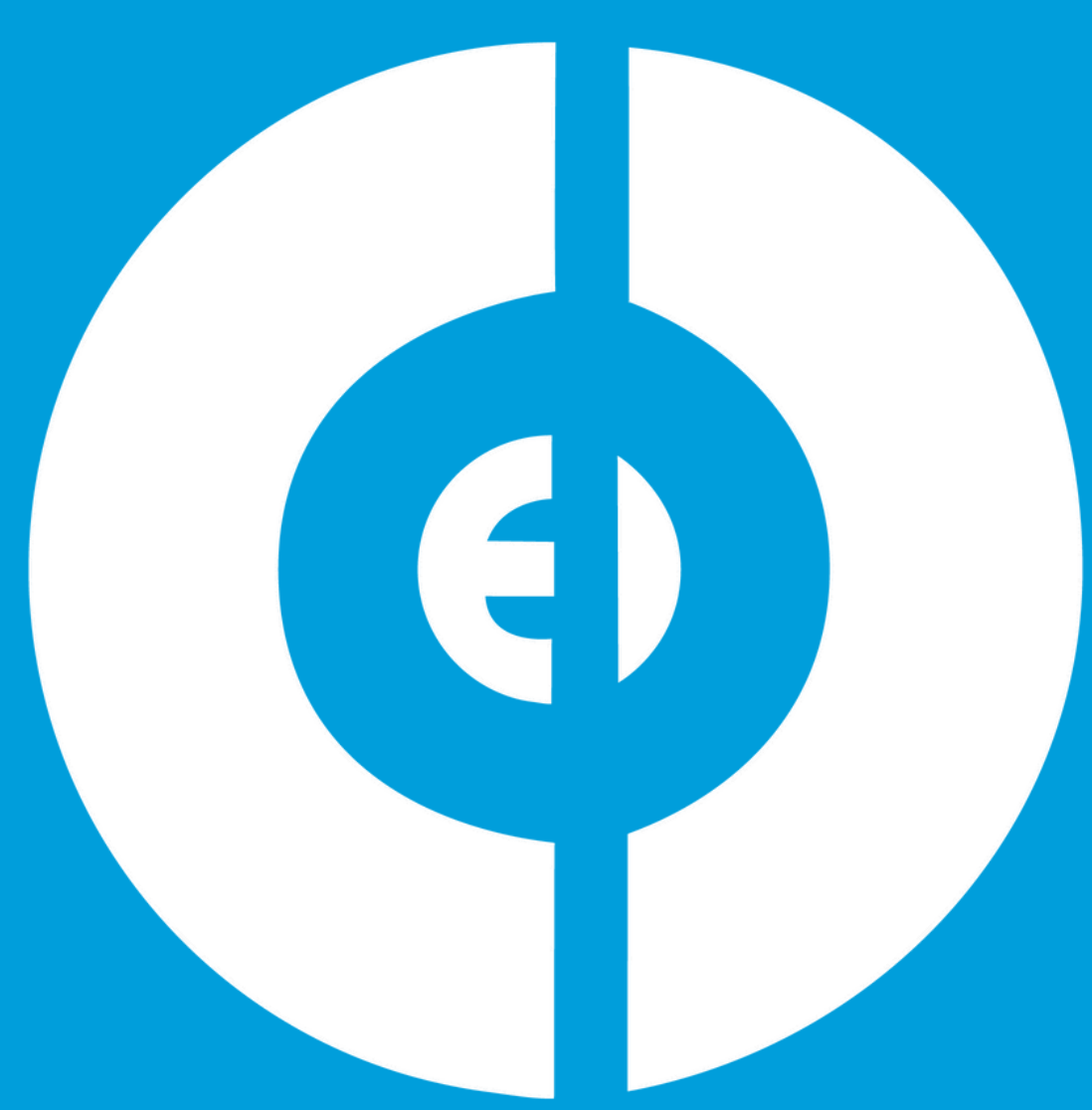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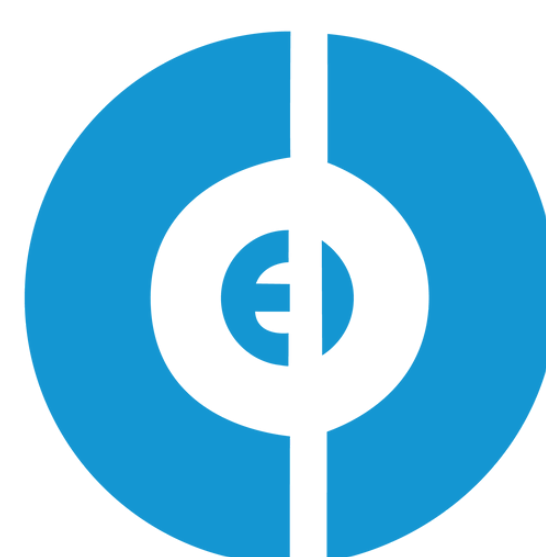


ANNUAL REVIEW

202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4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Table of Contents

03 발간사

08 상반기 주요활동

23 하반기 주요활동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4 리뷰」를 발간하면서



2024년은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아시아·태평양 및 전 세계 범죄통계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한 해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 지원, 여성살해 통계 프레임워크 시범 도입, 불법 자금 흐름 측정 교육, 인신매매 데이터 고도화 등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센터는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몽골, 피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업은 지역별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지원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제4차 아·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 측정에 대한 지역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 측정 방법론 전파 등 지역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및 제33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통계 거버넌스에서 협력센터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SDG16 지표 작성과 관련된 기술적 접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형사사법 통계 혁신 방안 등도 본 보고서를 통해 소개되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센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ODC 본부 및 지역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업과, 역내 통계청 및 형사사법 기관, UNESCAP, UNSIAP, UN Women,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 SPC),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인터폴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검찰청 등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해왔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범죄 통계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각국의 통계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UNODC의 통계 도구 이행과 범죄통계 국제표준 개발을 지원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본 연례보고서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통찰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2025년 5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장 최종희

Photo Gallery



2024.1.16.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한국 방문



2024.2.22.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 대상
IFFs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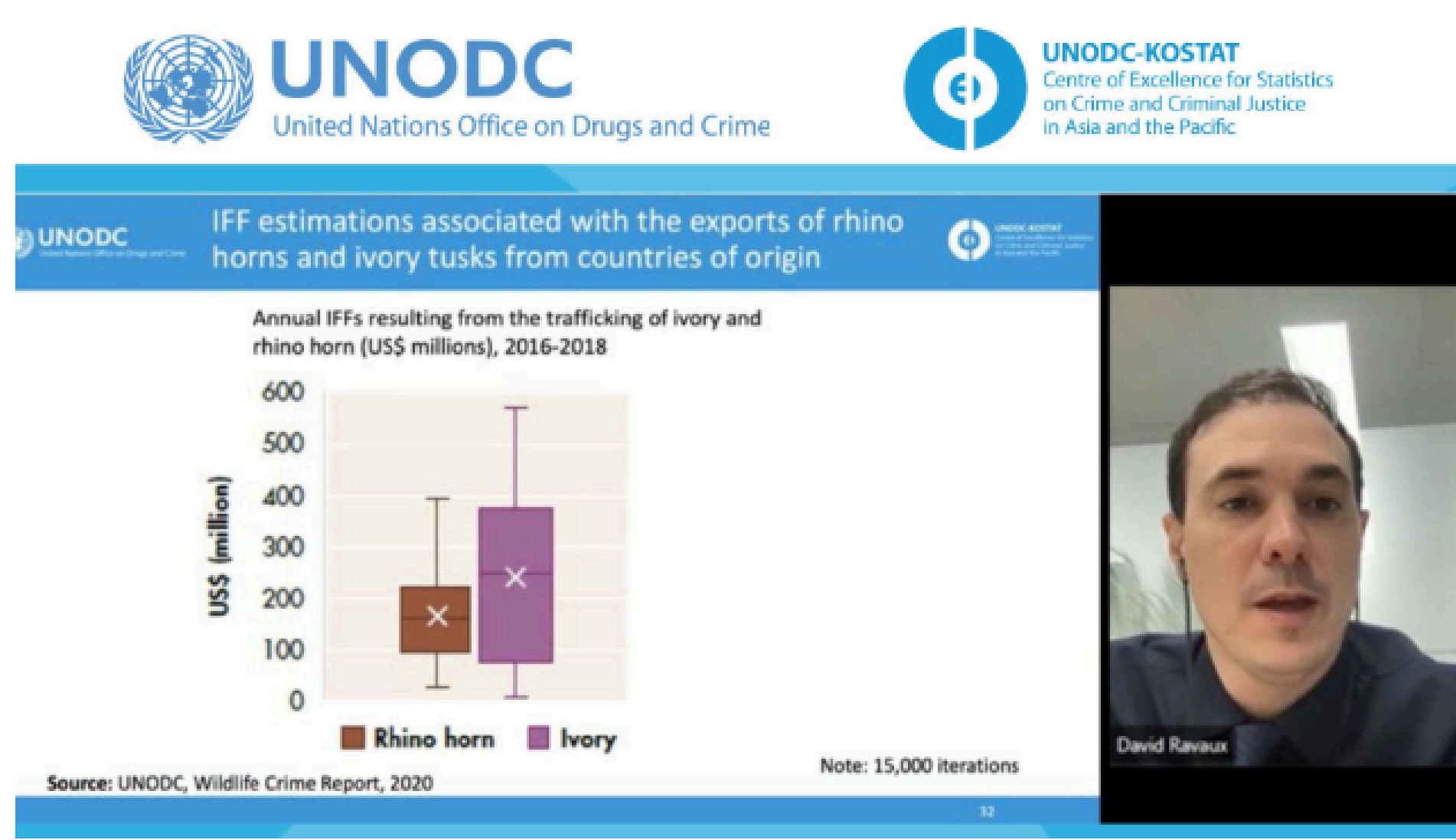
2024.2.27.-3.1.
제55회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 참가



2024.3.3-8.
몽골 대상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파일럿 프로젝트 개시



2024.3.19-22.
피지 대상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파일럿 프로젝트 개시



2024.4.26.
아프리카 지역 대상 IFFs 측정
기술교육 지원

Photo Gallery



2024.5.13-17.
제33차 CCPCJ 참가



2024.5.27-31.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데이터
고도화 역량 강화 활동 개시



2024.6.13.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수집 주기
글로벌 브리핑 개최



2024.7.9-11.
제4차 아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 회의 개최



2024.7.19.
통계청 주관 SDGs 워크숍 참여



2024.7.29-8.2.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고품질 데이터
생산 워크숍 개최

Photo Gallery



2024.8.13.
KICJ와 APECCJ 공동 개최



2024.9.3-6.
'성인지 관점에서 본 범죄 통계
지역 훈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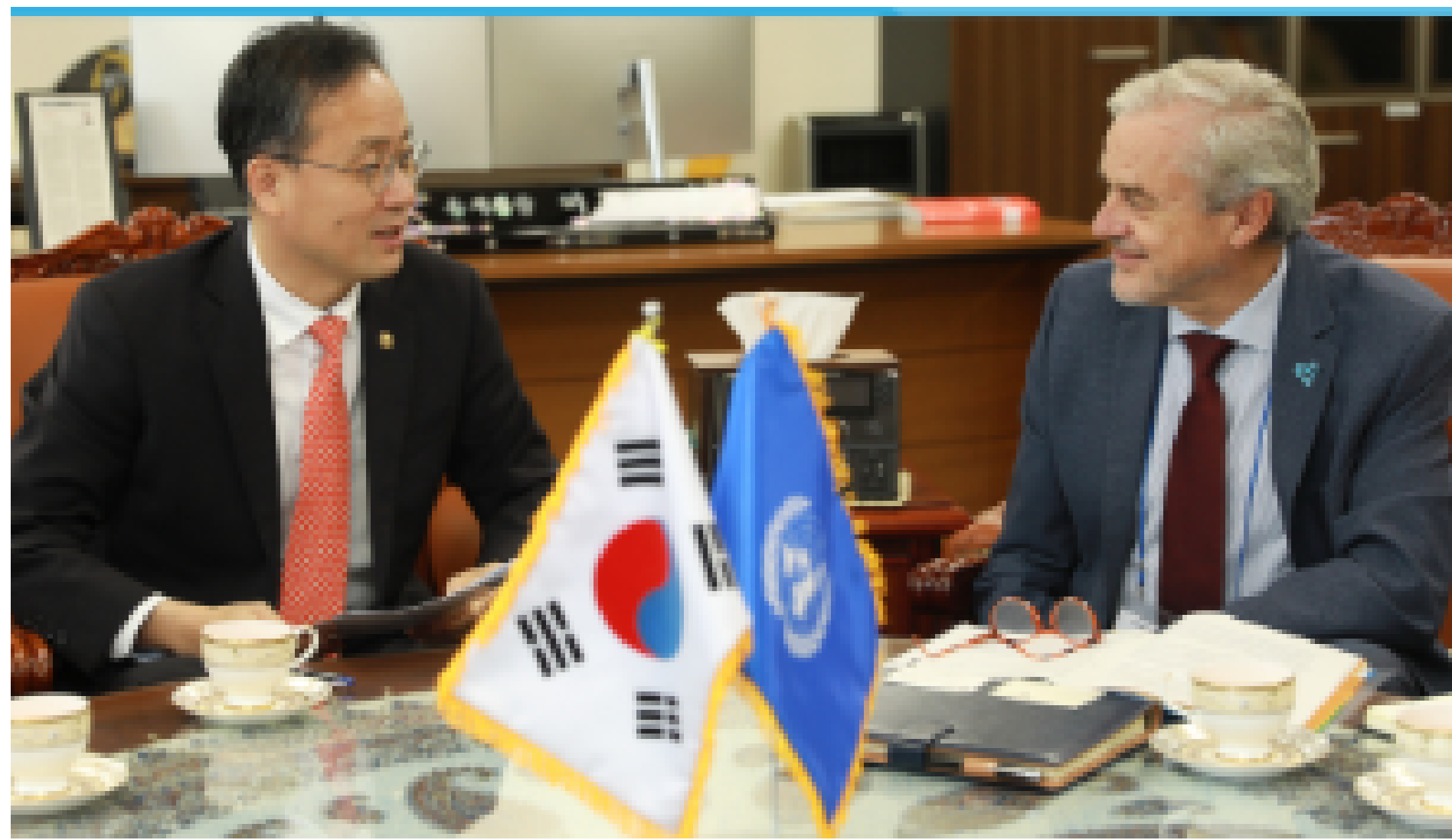
2024.9.30.-10.4.
키르기스스탄 CVS 워크숍 참석



2024.10.2-10.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대상
ICCS 교육 개최



2024.10.24-25.
제1회 인터폴 치안 미래 회의 참가



2024.10.29.
UNODC - 한국 통계청
파트너십 강화

Photo Gallery



2024.11.13-16.
제79차 ASC 참가



2024.11.20.
KCCS 세미나 참석



2024.12.9-13.
'2024 아태 통계 주간' 참여



2024.12.16-20.
베트남 검찰청과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범죄 기술 강화 협력

인도네시아 국가범죄정보센터, 협력센터 방문

2024년 1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찰청 산하 국가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re, NCIC) 대표단이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1월과 3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두 차례의 워크숍에 이어,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이행과 관련된 논의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주요 통계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범죄정보센터는 인도네시아 내 국제표준범죄분류 이행 실무 그룹의 핵심 기관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통계청을 방문하여, 국제표준범죄분류 도입에 따른 실무적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를 공유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협력센터는 UNODC의 주요 통계 도구를 소개하며, 아·태 지역 국가들의 범죄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조사 매뉴얼(Manual on Crime Victimization Surveys, CVS), 부패조사 매뉴얼(Manual on Corruption Survey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16 조사 이니셔티브(SDG16 Survey Initiatives),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 인신매매 행정데이터 국제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 for Administrative Data on Trafficking in Persons, ICS-TIP)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표단의 방문은 인도네시아 경찰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범죄통계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통계 분야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 대상 마약 관련 불법 자금 흐름 워크숍 주최

협력센터는 2024년 2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마약 밀매 관련 불법 자금 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IFFs) 측정을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11월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주최한 불법 자금 흐름 측정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법 집행 연수원(Law Enforcement Academ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과 UNODC 중앙아시아 지역 사무소 산하 정보센터(UNODC Information Centre of the Regional Office for Central Asia)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협력센터는 마약 밀매에 따른 불법 자금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유입 및 유출 불법 자금 흐름과 같은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UNODC의 마약 밀매 관련 불법 자금 흐름 측정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공식 및 핵심 변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워크숍에는 경제 범죄 대응부, 내무부, 법 집행 연수원, 세관, 공화국 에이즈 센터 등 마약 밀매 퇴치 및 약물 남용 예방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관의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불법 자금 흐름 측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와 국가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자금 흐름 측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향후에도 중앙아시아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범죄통계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55회 유엔통계위원회 회의, 글로벌 통계 협력의 진전 도모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5회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회의는 통계 분야의 국제 협력과 표준화를 심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 통계 방법론의 개발과 표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회의에는 24개 유엔 통계위원회 회원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 대표, 유엔 기구 대표,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공식 통계 이행 지침 채택, SDGs 지표 개선, 위원회 포용성 증진,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 방법론 혁신 및 시스템 현대화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범죄통계 분야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 통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통계, 젠더 통계, SDGs 지표 등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 SP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등 국제 기구와 다양한 국가의 통계청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국통계청과 UNODC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양 기관은 공식 회담을 통해 사이버범죄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시범 사업 개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제표준범죄분류(ICCSC)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의 성공 사례는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공유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본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SDG16의 범죄 지표 개선, 성인지 관점의 범죄 통계 온라인 교육 확대, 여성살해 및 부패 등 범죄통계 개발·개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55th Session (2024)

협력센터, 몽골에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파일럿 프로젝트 개시

2024년 3월 4일, 협력센터는 몽골에서 여성살해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er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UN Women CoE) 및 몽골 범죄예방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of Mongolia, CCCP)와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으로 개발한 여성살해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는 2022년 유엔 통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프레임워크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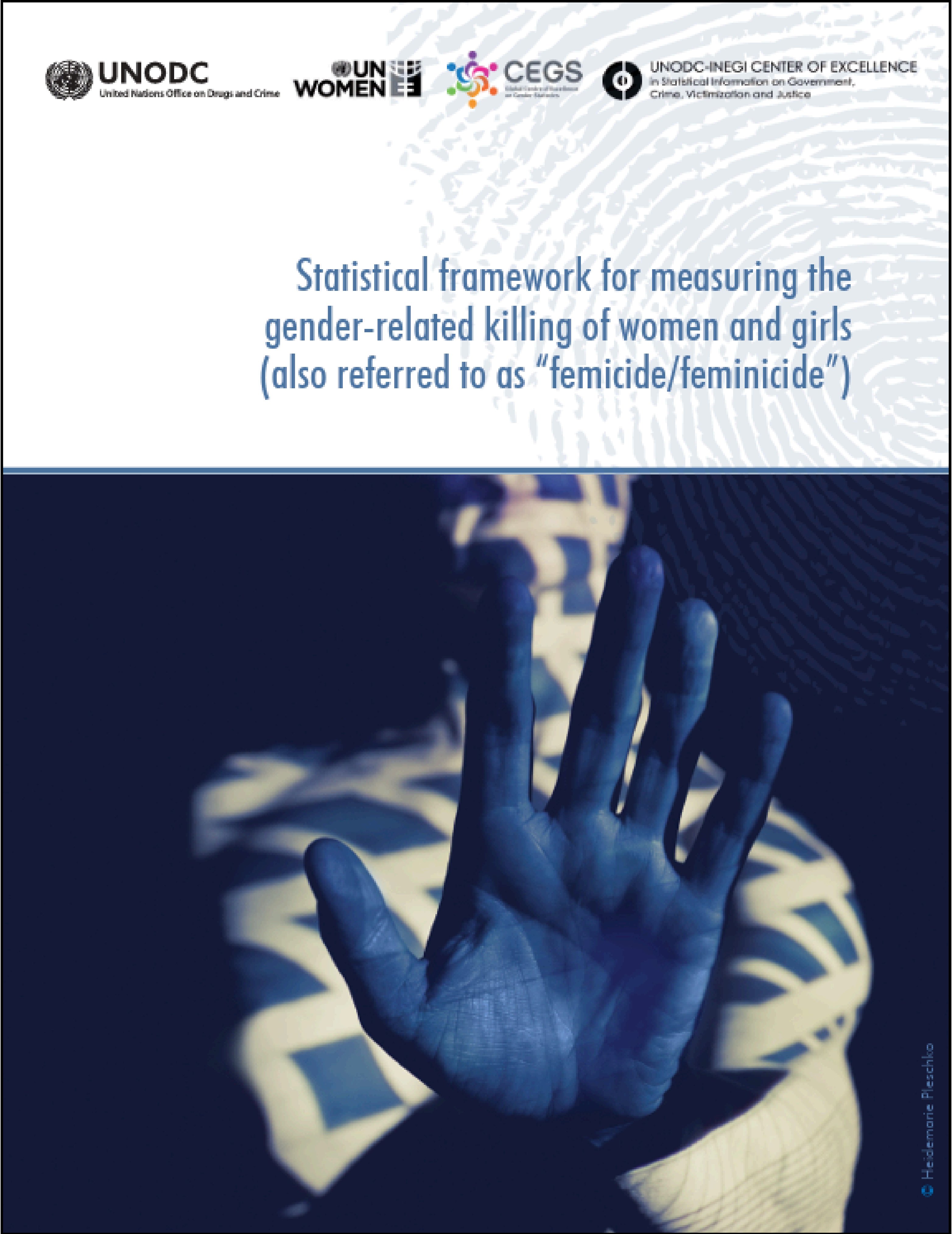
협력센터는 그간 국제표준범죄분류(ICC) 및 범죄피해조사(CVS) 관련 워크숍을 통해 몽골과의 협력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국제표준범죄분류를 기반해 범죄통계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살해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몽골의 참여 결정은 자국 통계 시스템 강화와 국제기구 간 협력 지속 의지를 반영합니다.

3월 4일 개최된 몽골 여성살해 통계 측정 프레임워크 도입 착수 회의에는 범죄 통계를 생산·수집·분석·배포하는 주요 국가 기관을 비롯해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대표 등 총 65명이 참석했습니다. 협력센터는 몽골 내 여성폭력 실태, 통계 프레임워크의 개요 및 이행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몽골 경찰청, 검찰청, 사법위원회, 통계청 등 주요국가 기관은 고의적 살인 및 여성살해 관련 데이터 수집·생산·분석·배포에 있어 각 기관의 임무와 실무 관행,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착수 회의 이후, 협력센터는 살해 데이터수집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 현황 평가 및 국제 프레임워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일련의 양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향후 맞춤형 기술 지원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평가가 완료되면 협력기관들은 몽골의 정책적·통계적 요구에 부합하는 워크숍을 설계하고 살해 통계 수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몽골 내 여성살해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과 더불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센터, 피지에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파일럿 프로젝트 개시

협력센터는 2024년 3월 19일,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oE) 및 피지 통계청과 협력하여 피지에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2022년 유엔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는 현재 시범 도입 중에 있습니다. 피지는 태평양 지역에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3월 19일 개최된 착수회의에는 고의적 살해와 여성폭력 통계의 생산·수집·분석·배포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관과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습니다. 협력센터는 통계 프레임워크의 개발 배경과 주요 내용, 이행 절차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지 통계청과 경찰청은 고의적 살인 및 여성살해 데이터 수집 및 생산 현황과 실무 절차, 직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협력센터는 살해 데이터 수집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유관 기관들과 양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통계 수집 체계에 대한 실무적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데이터 평가가 완료된 후, 협력센터는 피지의 정책적·통계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워크숍을 설계하고 살해 통계 수집 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피지 내 여성살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태평양 지역 내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센터, 아프리카 지역 대상 불법 자금 흐름 측정에 기술교육 지원

협력센터는 2024년 4월 26일,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의 요청에 따라 마약 밀매, 이주민 밀입국, 야생동물 밀매 등과 관련된 범죄형 불법 자금 흐름 측정 방법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UNECA는 아프리카 지역의 불법 자금 흐름 측정 및 억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4개국의 통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은 범죄수익이 국가 간에 세탁, 재사용,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이동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이를 중요한 과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SDG 세부목표 16.4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범죄, 부패,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발생한 불법 자금은 국가 간 은밀히 이전되어 또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통계적으로 측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제47차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에서 '내외부 불법 자금 흐름의 총 가치(미국달러 기준)'를 측정하는 SDG 16.4.1지표가 채택되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협력센터 David Ravaux 방법론 담당관이 몰디브,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실제 적용한 공급·수요 기반의 불법 자금 흐름 측정 방법론과 국가별 데이터 가용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보 접근과 이해관계자 협력이 제한되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실무상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아프리카 4개국 컨설턴트들은 자국 내 가용 데이터 파악의 중요성과 기간 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각국의 범죄형 불법 자금 흐름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TARGET16·1  REDUCE VIOLENCE EVERYWHERE	TARGET16·2  PROTECT CHILDREN FROM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VIOLENCE	TARGET16·3  PROMOTE THE RULE OF LAW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TARGET16·4  COMBAT ORGANIZED CRIME AND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TARGET16·5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TARGET16·6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TARGET16·7  ENSURE RESPONSIVE, INCLUSIVE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TARGET16·8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IN GLOBAL GOVERNANCE	TARGET16·9  PROVIDE UNIVERSAL LEGAL IDENTITY	TARGET16·10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TARGET16·A  STRENGTHEN NATIONAL INSTITUTIONS TO PREVENT VIOLENCE AND COMBAT TERRORISM AND CRIME	TARGET16·B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제33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국제 범죄 대응 담론

2024년 5월 13일에서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33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128개국, 75개 비정부기구 등 총 1,500명의 대표가 참석해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97개의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10개는 사법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세대 간 정의 실현을 통한 청년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6년 제15차 유엔 범죄 회의 준비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정 전략, 아동 보호, 인신매매, 환경 범죄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 대응 정책의 기반으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의 국제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도구 개발과 이를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에 통합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협력과 기술 지원, 유엔 표준의 일관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디지털 시대 형사사법 대응'을 주제로 한 부대 행사도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최종희 협력센터장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교수가 아·태지역 국제표준범죄분류(ICCSC) 이행 현황과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국제표준범죄분류 이행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을 주제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한국 형법과 국제표준범죄분류 간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외 부대 행사에서는 사이버범죄, 여성살해 데이터 추적, 조직범죄의 금융 사기, 범죄와 부패,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인신매매 탐지 및 회복적 정의 지원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희 센터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본부 및 지역 사무소 관계자들과 범죄통계의 개발, 인신매매 데이터 품질 향상, 사이버범죄 측정 개선 등을 주제로 하는 제4차 지역 워크숍 공동 개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센터는 한국 환경부가 추진하는 'Bye Bye Plastic' 캠페인에도 UNODC의 Jean-Luc Lemahieu 정책분석 및 공보국장과 함께 참여하여, 환경 범죄와 형사사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생물 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 가속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경범죄로 인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글로벌 참여, 범죄 통계 협력 촉진, UNODC 표준 도구 이행 지원,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형사사법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국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신매매 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활동 개시

협력센터는 2024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 정책 개발과 증거 기반 대응을 위해서는 조화롭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신매매 행정데이터 국제분류기준(ICS-TIP)의 도입은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인신매매 통계 생산의 기반이 됩니다.

본 활동은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BPS)과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보호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인신매매 발생률 측정을 위한 통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27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열린 착수 회의에는 법 집행 기관,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Indonesian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 통계청, 국제이주기구(IOM), 인도네시아 대학교 등 36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이 자리에서 인신매매 데이터 수집과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 국가 대응 계획 수립, 적절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신매매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이번 이니셔티브에 깊은 관심과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관별로 분산된 인신매매 데이터를 ICS-TIP 프레임워크에 따라 표준화하고 데이터 생산 기관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착수 회의 이후 협력센터는 인신매매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과 현행 수집 체계 평가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 주요 국가 기관을 개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인신매매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분석·보고 체계의 개선 과제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보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행정자료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워크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화 추진,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인신매매 범죄 대응의 국제적 모범 사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수집 주기 글로벌 브리핑 개최

2024년 6월 13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데이터의 날(Data Day)' 행사를 개최하고,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데이터 수집 주기에 대한 온라인 글로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회원국이 마약, 범죄 및 형사사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범죄 동향 및 예방 전략, 형사사법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UNODC가 제공하는 모든 방법론적 도구를 소개하는 전체 세션과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마약 데이터라는 두 개의 주제별 분과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는 UNODC의 데이터 수집 도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회원국의 대응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인신매매 국제 보고 설문지(Questionnaire for the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GLOTiP), 불법무기 흐름 설문지(United Nations Illicit Arms Flows Questionnaire, UN-IAFQ), 마약 관련 연례 보고서 설문지(Annual Report Questionnaire, ARQ), 개별 마약 압수 데이터(Individual Drug Seizures, IDS) 등이 포함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직접 질문과 토론을 통해 현장의 데이터 수집 실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협력센터는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세션에서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 체계 운영실태 조사(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UN-CTS)'에 대하여 발표하고, 특히 '고의 살해' 항목의 사례 연구를 통해 회원국이 범죄 유형 및 형사사법 시스템 성과를 국제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 체계 운영실태 조사는 회원국이 범죄 동향과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지표 8개에 대한 연례 조사이며 국제표준범죄분류(ICCSC)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와 UNODC 방법론 도구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데이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DATA FILE				
Sheet name	Annual variables	Year 1	Year 2	Completion by
1	Intentional Homicide	Intentional homicide offences;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offences;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sex, V-P relationship, situational context and mechanism of killing	Intentional homicide victims by sex and age, citizenship, and in three largest cities; Intentional homicide perpetrators by sex and age, citizenship, and recidivist status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2	Violent Crimes	Serious assault; Robbery; Kidnapping; Sexual violence offences by type	Serious assault victims by V-P relationship and sex; Sexual violence victims by V-P relationship and sex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3	Other Crimes	Drug-law offences by type; Corruption offences by type; Smuggling of migrants; Trafficking of weapons and explosives;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criminal group; Participation in a terrorist group; Financing of terrorism	Burglary; Theft; Motor-vehicle theft; Fraud (plus cyber-related); Money laundering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4	Criminal Justice System (CJS) Process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ersons prosecuted, persons convicted and persons held for: Intentional Homicide; Bribery; Rape; Drug possession; Drug trafficking	Total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persons prosecuted, persons convicted, by sex, age status and citizenship; Persons brought before the criminal courts/by type of legal representation	ALL: Police, Prosecution, Courts, Prisons
5	Prisons	Persons held by sex, age status and citizenship; Persons held by sentencing status and sex; Unsented persons held by length of detention	Mortality in prison by type	Prison/Probation Services
6	Criminal Justice System (CJS) Personnel & Capacity		Police personnel by sex; Police personnel by function; Prosecution personnel by sex; Professional Judges or Magistrates by sex; Prison staff by sex; Prison staff by function; Official Capacity of adult/juvenile prisons; Number of prison facilities	ALL: Police, Prosecution, Courts, Prisons
7	Victimization Survey	Results and methodology of crime victimization surveys conducted		NSO or authority responsible for victimization surveys

UN-CTS 구성



UN-CTS METADATA FILE



UN-CTS DATA
QUESTIONNAIRE FILE

제4차 아·태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회의 개최

협력센터는 지난 2024년 7월 9일부터 11일, 태국 방콕에서 제4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2016년, 2019년 지역 회의에 이어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태국사법연구원(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이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지역 회의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생산, 관리, 사이버범죄, 여성 대상 범죄, 인신매매 등과 같은 주요 범죄 측정에 관한 방법론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8개의 주요 세션과 2번의 그룹 토론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총 19개국으로, 통계청, 형사사법기관,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민간 부분의 전문가,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 100여명이 함께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범죄피해조사(CVS) 및 국제표준범죄분류(ICC)에 관한 교육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식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플랫폼이자 네트워크 재개의 기회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아·태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현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제고
-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생산·수집·분석을 위한 국제 표준 홍보
- 역내 통계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및 제안
- 역내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 및 파트너십 강화

회의는 태국사법연구원 Phiset Saardyen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식 교류와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최종히 협력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플랫폼임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전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국

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범죄 통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Masood Karimipour 소장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솔직하고 열린 논의를 독려하였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Rachael Beaven 통계국장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측정과 관련한 도전과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최근 진전과 우선순위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협력센터를 소개하고 참석한 회원국들에게 협력센터와의 협력을 독려하였으며, 회의 전 실시된 아태지역 국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현황과 기술 역량 강화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UNODC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SC)와 곧 발간될 매뉴얼의 개요를 설명하고, 경찰·검찰·법원·교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통계 데이터 생산을 위한 지침을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베트남, 몰디브, 피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한국, 필리핀, 부탄이 초청되어 각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시스템과 국제표준범죄분류에 부합하는 국가 범죄 분류 개발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젠더 기반 폭력(GBV), 인신매매(TIP), 부패, 불법 자금 흐름(IFFs),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범죄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 소개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여성과 소녀 대상 성별 관련 살인(femicide)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와 '불법 금융 흐름 통계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유엔인구기금(UNFPA)은 '설문조사를 통한 젠더 기반 폭력 실태 측정'을, UNODC는 '인신매매 범죄의 국제 분류'를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파키스탄, 네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일본, 그리고 민간 기업 BitDefender는 각국의 다양한 범죄 측정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날 마지막에는 월드카페(World Café) 세션이 열려, 참가자들이 자국의 주요 도전 과제와 교훈을 논의하고,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세션이 열려 암수범죄(dark figure)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자국의 범죄피해 실태조사 경험과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협력센터는 국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통 범죄피해조사 설문지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 제안이 논의되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태국, 부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가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활용 및 보급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조사(UN-CTS) 세션에서는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과 범죄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이 운영실태조사 데이터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국가 통계 시스템 및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각국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피해조사, 인신매매 행정데이터 국제분류, 유엔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조사 제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관련 워크숍 참여

협력센터는 2024년 7월 19일, 한국 통계청(KOSTAT)이 주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현재 글로벌 및 국내 발전 노력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협력센터의 긴밀한 협력기관인 통계청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SDGs 지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여러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국의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협력센터는 '2024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훈련 과정에 초청되어 SDG16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세션은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국 정부의 대응
- SDGs 지표 기반 정책 수립과 사례(목표 2: 농업)
- SDGs 지표 기반 정책 수립과 사례(목표 11: 도시)
- SDGs 지표 기반 정책 수립과 사례(목표 16: 범죄)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6: 평화, 정의,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 세션에서 고의 살해, 부패 등 SDG 16 지표의 정의, 산출 방법,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및 타 SDGs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이 모든 SDGs 달성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SDG 16의 중요성과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의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SDG 16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도 소개되었으며,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UN-CTS)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데이터 포털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참석자들의 실무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UNODC,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작성한 SDG 16 진행 보고서의 최신 결과를 요약하여 공유하고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이 SDG 16 달성을 위한 글로벌 동향과 도전 과제를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통계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SDG 16 지표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생산과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SDG 16 달성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신매매 고품질 데이터 생산 워크숍 개최

협력센터는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신매매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도네시아 통계청(BPS)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데이터 생산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2.2 지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한 이후, 고품질 인신매매 데이터 생산은 국가 인신매매 대응체계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착수 회의에 이어, 이번 전국 워크숍에서는 행정자료의 활용과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신매매 발생률 측정 방법론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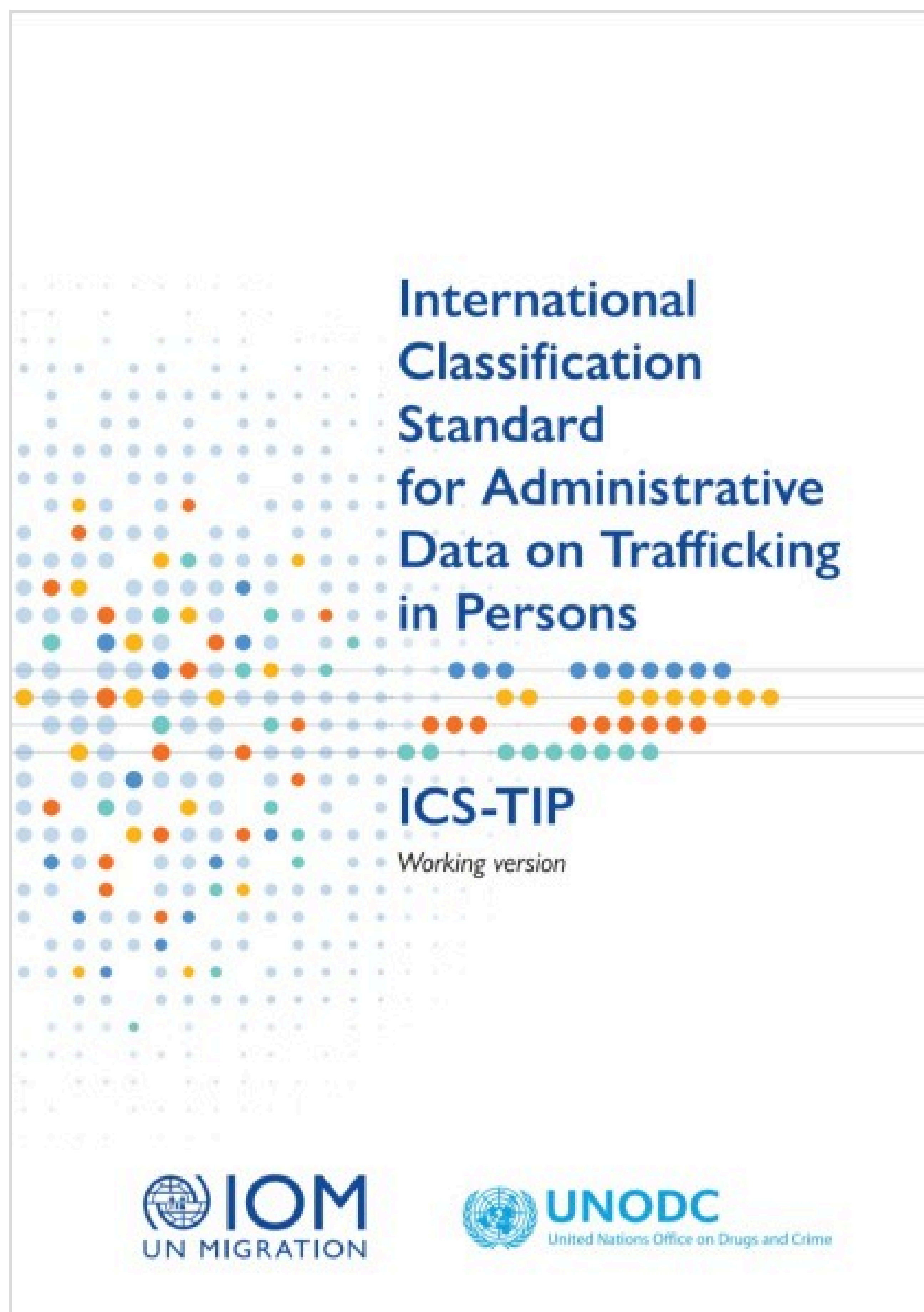
워크숍에는 법 집행 기관, 외교부,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 통계청,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노동조, 인도네시아 대학교 등 17개 기관에서 63명의 대표가 참여하여, 인신매매 방지 국가 특별전담조직(Anti-Trafficking National Task Force)과 협력해 인신매매 관련 데이터 품질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UNODC 인도네시아 사무소 Erik Van der Veen 소장, 인도네시아 통계청 사회통계국 Ateng Hartono 부국장, 최종희 협력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프로젝트 주요 이정표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UNODC는 행정자료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핵심 도구임을 강조하며, 데이터 가용성 평가 결과와 인신매매 행정데이터 국제분류기준(ICS-TIP)을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절차와 데이터 관리·책임 체계 수립 방안에 대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ICS-TIP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수 측정을 위한 조사 기반 방법의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조사 기반 및 비조사 기반 방법론(예: 다중시스템추정법)을 통한 인신매매 발생률 추정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 발생률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도구 개발 프로젝트인 '인신매매 분석을 위한 표준 도구(STATIP)'가 안내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오는 10월 완료 예정인 인도네시아 해양어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 조사 경험을 공유하여 실질적 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워크숍 종료 이후 협력센터는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발생률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 방문과 현장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및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1930) 이행을 지원하는 STATI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강제노동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 for Administrative Data
on Trafficking in Persons (ICS-TIP)

제3회 아·태 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공동 개최

협력센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24년 8월 13일 서울에서 '제3회 아·태 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APECCJ)'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정책 수립과 근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증거 기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아·태 지역 범죄피해조사(CVS)와 형사사법 통계(CCJS)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범죄 통계의 중요성과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환영사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역할과 아·태지역 데이터 허브로서 한국 통계청의 위상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조 세션에서는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Kevin Wolf 교수가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 CVS)의 중요성과 정확하고 포용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의 활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SC)와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현황이 다뤄졌습니다. 한국통계청 심경보 사무관은 한국범죄분류(KCCS) 개발과 성과를 소개하고, 협력센터 김지수 통계관은 아·태 범죄피해조사 구축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한국통계진흥원 박성훈 국장, 몽골 통계청 Khishigzaya Tumorjav 선임전문가, 캄보디아 통계청 Kheam They 국장이 각국 범죄피해조사 도입 및 시행 경험을 공유하며, 도입에 있어 협력센터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서비스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보통계팀 홍원신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 현대화 전략을 소개하며 다양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고, 김진홍 전문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성과 확산 사례를 통해 AI가 범죄·형사사법 통계 정보 분석과 서비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습니다.

세션 종료 후, 협력센터는 참석자들과 함께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범죄 데이터 생산·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회원국들이 모범 사례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범죄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센터는 지역 내 범죄통계 인프라의 현대화와 형사사법 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력센터, 성인지 관점에서 본 범죄통계 지역 훈련 공동 주최

협력센터는 2024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성인지 관점에서의 범죄 통계 지역 훈련을 유엔아시아태평양통계연수소(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of Asia and the Pacific, UNSIAP),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oE),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젠더팀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협력센터와 UNODC, UNSIAP이 2022년 개발한 '제2차 성인지 관점의 범죄통계 온라인 과정'을 기반으로, 아시아 10개국의 국가통계청, 법 집행 기관, 법무부, 검찰, 연구기관 등 범죄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력센터 정한솔 프로그램 전문관은 개회 발언에서 '젠더 관점을 정책 결정에 통합하는 데 있어 데이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젠더 렌즈를 통해 범죄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의 포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히 성별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 젠더가 범죄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과 함께, 국제표준범죄분류(ICC) 등의 국제 기준을 활용해 젠더 차원을 통합하는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성별에 따른 범죄 발생 현황과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세션에서 다루어진 주제에는 고의적 살인, 성폭력, 괴롭힘, 강제결혼, 여성할례, 성 선택적 낙태,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리즘 등 주요 범죄 이슈와 그에 따른 젠더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별 관련 살인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Femicide)와 기술을 이용한 여성 폭력(Technology-facilitated violence against women), 환경범죄 등 새로운 이슈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수집의 최신 동향과 도전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실습 세션에서는 데이터 생산자 그룹이 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젠더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를 산출하는 실습에 참여했고, 데이터 사용자 그룹은 범죄 및 젠더 통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주제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젠더에 민감한 범죄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를 발표하며 상호 학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 국가 전문가들의 성 주류화 역량과 범죄 통계 시스템 현대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UNODC 젠더팀, UNSIAP, UN Women CoE와 협력하여 고품질 젠더 기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지역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국가범죄피해조사 지원 강화

협력센터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조사(CVS) 관련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하며,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범죄통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센터는 키르기즈스탄의 국가범죄피해조사 시행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협력센터, UNODC 정보센터와 키르기즈스탄 사무소(UNODC Kyrgyzstan Office)는 키르기즈스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 검찰총장실(General Prosecutor's Office, GPO),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MIA), 국가통계위원회(National Statistical Commission, NSC) 등 주요 기관과 개별 회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재확인하고, 조사 방법론 초안을 검토하며, 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UNODC 팀은 미신고 및 미기록 범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피해조사가 행정 기록을 보완하여 국가 범죄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 대중의 안전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범죄 예방 전략 및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유관기관들이 범죄피해조사 수행에서 어떤 역할과 업무를 맡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준비된 조사 방법론 초안을 함께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응답률 제고를 위해 범죄피해조사 명칭을 공공 안전 설문조사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현장조사 운영지침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현장조사 관리자 교육은 실사 조사원 및 감독관을 대상으로 윤리적 고려사항, 사전 동의 절차, 응답자의 비밀 보장, 무응답 및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 대처법을 다뤘으며, 모의 인터뷰를 통한 면담기법과 현장 대응 전략을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룹 토론을 통해 실습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 접근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협력센터는 설문지, 방법론, 현장조사 계획의 확정 및 실행, 국가 이해관계자 대상 지속적 정보 공유를 통해 키르기즈스탄의 범죄피해조사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 안전 설문조사는 키르기즈스탄 형사사법 시스템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통계 인프라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대상 국제표준범죄분류(ICC) 교육 개최

협력센터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멕시코사무소(UNODC Mexico Office), 연구동향분석국(UNODC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걸프협력회의 지역사무소(UNODC Office for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Region, OGCCR)와 협력하여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ICC) 교육 세션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걸프지역 국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바레인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MOI)의 지원으로 이틀간 바레인에서 열렸습니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UNODC OGCCR의 Hatem Aly 소장과 바레인 내무부 대표의 인사말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ICCS의 개발 배경, 구조, 적용 원칙 및 이행 전략에 대한 강의를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 범죄 데이터를 ICCS 코드에 매핑하는 실습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 코드 체계와 자국 범죄 분류 체계를 연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UNODC 팀은 바레인의 형사사법 통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ICCS 이행 로드맵을 제안하고,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나이프 아랍안보과학대학(Naif Arab University of Security Sciences, NAUSS)의 지원 아래 5일간 개최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범죄 및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 총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은 NAUSS 교육부 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범죄통계의 국제표준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ICCS의 분류 원칙과 국가별 적용 사례를 학습하고, 대응표(Correspondence Table) 작성 및 범죄 데이터 매핑 실습을 통해 자국 상황에 맞는 ICCS 적용 방법론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한국의 ICCS 도입 경험을 사례로 소개하며, 국가별 분류 기준, 도입 과정의 도전과제 및 이행 효과를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사진과 참가자들은 각국 범죄 데이터 수집 방식과 분류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대화형 실습을 통해 실무적인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통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ICCS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범죄 통계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향상, ICCS 이행 지원, 국제 표준기반 데이터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센터, 제1회 인터폴 치안 미래 회의 참가

협력센터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인터폴 치안 미래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37개국의 법 집행 기관 고위급 인사, 미래 전문가,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가올 법 집행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총회는 인터폴 Jürgen Stock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법 집행기관의 역할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술 기반 범죄 대응과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의 의미를 환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세션 1 – 미래 시나리오: 참가자들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 집행 및 치안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 세션 2 –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 범죄의 진화, 데이터와 증거의 신뢰성 문제, 치안 모델 변화, 시민의 기대 변화를 주제로, 법 집행기관의 역할 변화와 이에 대한 준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가짜 증거와 AI 조작 등 신형 위험 요소, 데이터 기반 수사 및 관리 체계, 새로운 범죄 수사 기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세션 3 – 법 집행 대비 방안: 참가자들은 법 집행기관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술 역량, 절차, 조직 구조, 국제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솔루션과 첨단 기술 활용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 아·태 지역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 지원의 중요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형사사법 데이터의 체계적 생산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 표준 프레임워크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센터가 아·태지역의 범죄통계 혁신 허브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적극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센터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과 국제 기준 이행을 위해 아·태 및 글로벌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회원국의 정책 결정과 범죄 대응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파시 조지호인사
새로운 국민의 다짐

보도시점 2024. 10. 23.(수) 15:00

누리망방송 2024. 10. 23.(수) 15:00

경찰청,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 개최

- 10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인천 송도서 경찰청-인터폴 공동 개최

- 인터폴 및 37개국 치안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의 치안 위협과 대응 방안 논의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024. 10. 23.(수)~25.(금)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터폴 사무총장과 함께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INTERPOL Future of Policing Congress)’를 개최한다.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미래치안 환경의 변화와 법집행기관의 대비’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의 법집행기관 대표들과 치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적 치안 환경을 예측하고 새롭게 나타날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는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 등 인터폴 관계자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37개 국가 90여 명의 치안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참여국: 아시아 11개국, 유럽 9개국, 아프리카 8개국, 미주 5개국, 중동 4개국

회의는 인터폴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조지호 경찰청장과 인터폴 총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중양 국회의원(전 인터폴 총재)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경찰청도 국제적 치안 협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회의는 ①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통한 법집행의 미래 예측, ②미래의 변화가 법집행기관에 미칠 영향, ③미래에 대한 법집행의 조정과 대비라는 세부 주제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는데, 경찰청과 인터폴이 공동으로 선정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소규모별 토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끌어낸 결론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분과별 토론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경제, 환경, 국제정세 등 모든 분야가 변화를 겪고 있는 이때, 이번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는 다가올 미래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안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인터폴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치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는 경찰의날 주간 동안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국제 치안산업대전(KPEX)과도 연계하여 진행되어, 국내 치안 산업 분야의 국제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상승효과를 낼 전망이다.

담당 부서	국제공조담당관 국제공조정책계	책임자	총경 박재석 (02-3150-2078)
		담당자	경정 정범석 (02-3150-2178)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협력센터, 전략적 회의를 통해 한국 통계청과 UNODC 간의 파트너십 공고화

2024년 10월 29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Jean-Luc Lemahieu 정책분석 및 공보국장이 제31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DLOMICO) 참석 및 주요 파트너들과의 면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9년 협력센터 설립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입니다.

통계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측은 그간의 공동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범죄 통계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 확대 및 사이버범죄 등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진 협력센터 방문에서는 Jean-Luc 국장이 아·태지역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통한 공공 안전 증진이라는 협력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협력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팀의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협력센터의 위상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는 글로벌 안보 위기, 신뢰 회복, 집단적 리더십 강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과 범죄, 갈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으며 국제 연대와 신뢰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Jean-Luc 국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죄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역할과 데이터 기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범죄분류(KCCS) 세미나 참석

2024년 11월 20일, 협력센터는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범죄분류(KCCS)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본 세미나는 국제표준범죄분류(ICC)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관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이번 2024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는 통계청과 한국경찰학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해양경찰청과 각 학계 연구팀이 참석하여 한국범죄분류의 최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적용 방안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범죄통계를 한국범죄분류 체계에 맞게 재분류하는 방안과 해양범죄 통계 개발을 위한 한국범죄분류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사이버범죄와 초국가적 범죄 등 현대 범죄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범죄 통계 생산을 통한 과학적 범죄 예방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과 학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범죄분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강욱 경찰대 교수(한국범죄통계학회 회장)는 경제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표준화된 범죄 분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치안 행정과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범죄 분류 및 통계 분석 개선을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경과와 향후 확대 적용 계획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범죄표준분류의 실용성과 국제적 비교 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CCS 기반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글로벌 표준도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숨겨진 범죄 패턴 발견을 통한 치안 전략 개선 등 국제표준범죄분류 도입의 주요 이점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 범죄통계 역량 강화와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협력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 체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용자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범죄분류가 실무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보다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범죄분류와 국제표준범죄분류 간 정합성 확보 및 범죄통계의 질적 개선과 국제 비교성 재고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존 범죄통계의 한국범죄분류 체계로의 SI 기반 자동 재분류 방안과 해양범죄 통계 개발 사례,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미래지향적 주제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

한국범죄분류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
제정판

통계청
Statistics Korea

한국범죄분류

-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02 상해를 야기하거나 의도한 행위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 03 성범죄 행위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 05 재산만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only
- 06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황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
-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 08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 10 자연환경 침해 행위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 한국범죄분류는 대분류 이하 중분류(4자리), 소분류(5자리), 세분류(6자리)로 구성되고, 최하위 단위인 세분류는 범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정범(01)', '교사(11)', '방조(21)', '미수(31)', '미수교사(32)', '미수방조(33)', '예비(41)', '예비교사(42)', '예비방조(43)', '음모(51)', '음모교사(52)', '음모방조(53)'에 2자리 코드를 부여하고 세분류(6자리) 코드와 결합하여 8자리로 구성함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 0101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한다.
- 01010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 010100 고의 살인 (Intentional homicide)
- 0102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 시도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바 해당 법률이 미수범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01020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 010200 고의 살인 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 0103 비고의 치사(고의에 의하지 않은 치사) (Non-intentional homicide)
: 타인을 고의 없이 위법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01031 과실치사 외 치사(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치사) (Non-negligent manslaughter)
- 010310 과실치사 외 치사(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에 의한 치사) (Non-negligent manslaughter)
- 01032 과실치사(중과실치사) (Negligent manslaughter)
- 010321 운송수단 치사 (Vehicular homicide)
- 010322 비운송수단 치사 (Non-vehicular homicide)

2024년 미국범죄학회 연례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대응 글로벌 협력 논의

2024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79차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연례회의에 협력센터가 참석하여, 사이버범죄 연구의 최신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범죄학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 격변하는 시대의 사람, 정책, 실천'을 주제로, 인종, 성별, 피해자 문제, 디지털 위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는 주요 논의 영역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AI 기반 범죄 예방 기술,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리학·법학·컴퓨터 과학의 학제 간 협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희 센터장은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표준화 프레임워크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 간 사이버범죄 법적 정의의 불일치와 자료 공유의 제약 등을 극복
- 사이버범죄 데이터 수집 책임 소재 명확화 및 협력 기반 마련
- 디지털 위협의 실태를 반영한 국제 협력 촉진

이 회의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서울연구원(Seoul Institute),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앨라배마대학교(University of Alabama)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범죄 통계 및 자료 수집 방식의 주요한 한계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사이버범죄 프레임워크의 주요 이용자 그룹 도출, 금융사기·아동 착취 등 사이버범죄 유형의 우선순위 설정, 국제적 차원의 협의, 시범 연구,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포함한 단계적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글로벌 사이버범죄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다양한 사이버범죄 측정 프레임워크의 실현 가능성 및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사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센터는 사이버범죄 측정 글로벌 표준 개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79/243

Distr.: General
31 December 2024

Seventy-ninth session
Agenda item 108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4 December 2024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79/460, para. 15)]

79/243.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bating Certain Crimes Committed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ystems and for the Sharing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of Serious Crimes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74/247 of 27 December 2019, in which it established an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representative of all regions,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effort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n combat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in particular the work and outcomes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75/282 of 26 May 2021, in which it decided that the Ad Hoc Committee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would carry out its work in New York and Vienna, commencing in January 2022, in order to provide a draft convention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seventy-eighth session,

Strongly convinced of the urgent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cybercrime, in view of its negative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and its ability to undermin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Strongly convinced also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bating Certain Crimes

24-24621 (E)



Please recycle 





[UNODC Cybercrime](#)

협력센터, 2024년 아시아-태평양 통계 주간에 성과 및 전략 계획 발표

협력센터는 2024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4 아태 통계 주간(Asia Pacific Statistics Week)에서 주요 세션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통계 주간은 통계 전문가, 정책입안자, 국가 통계청 및 개발 파트너들이 모여 통계 시스템의 기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와 통계의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 포럼으로, 통계 혁신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협력센터는 제7차 및 제8차 통계위원회에 대한 이전 기여를 바탕으로,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의 새로운 트렌드와 지속적 프로젝트, 향후 계획을 강조하며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제20차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운영이사회 회의에서 최종희 센터장은 UNSIAP 및 UN Women CoE와의 파트너십을 소개하고, 성별 관점의 범죄통계 지역 훈련 및 여성살해 통계 측정 프레임워크 e-러닝 모듈 확장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협력센터의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통계 훈련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 빅데이터, 지역 협력 등 신흥 분야를 우선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제19차 통계기관장 관리 세미나에서 민첩한 통계 시스템(Agile Statistical Systems) 구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여 팀워크와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으로 동적 데이터 수요에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협력센터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국가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 수집과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9차 UNESCAP 통계위원회에서 협력센터는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제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회원국 간 인사이트와 과제를 공유하며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회의 후 비공식 토론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토크 세션에서는 사이버범죄 데이터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정책 개발을 위한 사이버범죄 통계 프레임워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여형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역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센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과 주요 이니셔티브 주도를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지속적인 진전을 지원하고, 데이터 시스템의 복원력 향상과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계 혁신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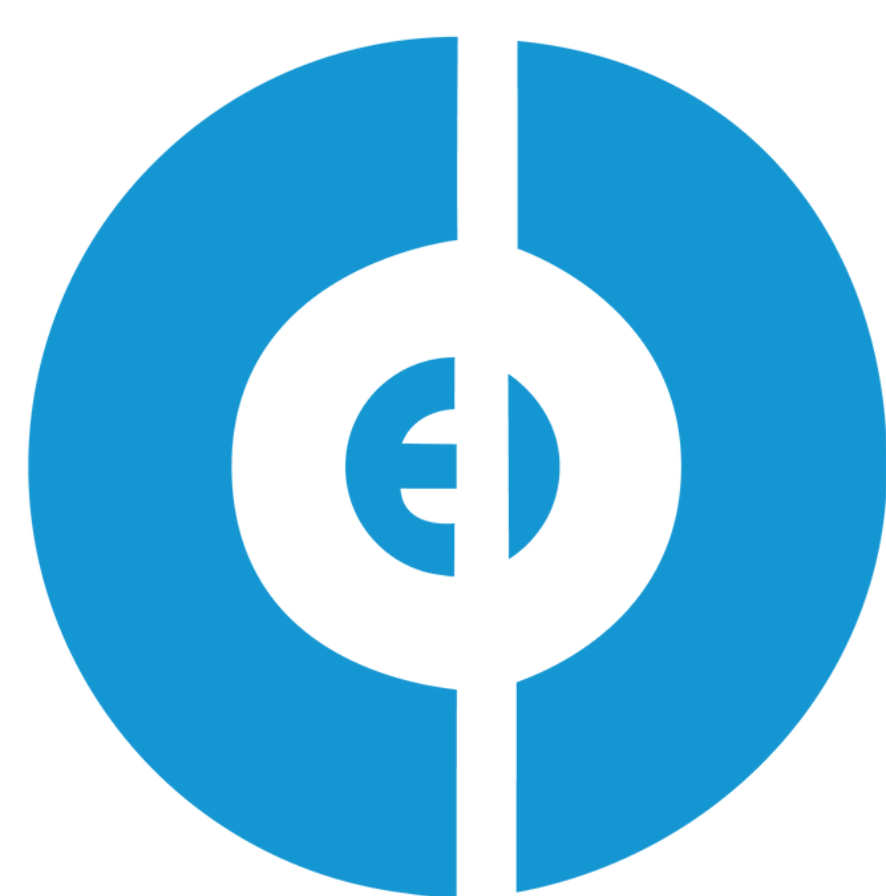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위해 방문

2024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Supreme People's Procuracy, SPP) 대표단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 사이버범죄 프로그램과 협력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범죄 조사 기술 강화를 위하여 방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이버범죄의 복잡성과 위협 수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고인민검찰청에 새로 설립된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대표단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내 주요 기관을 비롯해 학계 및 민간 업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처리, 인공지능(AI) 기반 포렌식 도구 활용, 암호화 장치 해제, 정교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개발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의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고도화하고 사이버범죄 대응체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 방문을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와 공유된 인사이트는 형사사법 공무원 역량 강화와 역내 협력 촉진이라는 협력센터와 UNODC 글로벌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와 긴밀하게 부합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전문지식 공유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Solid Data
Strong Policy
Safe Community**



coekostat.unodc.org